

장흥물축제 앞두고 “때 빼고 광 내고”



장흥군 기관·사회단체들이 물축제 앞두고 탐진강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4일 장흥군과 새마을협의회는 물축제 대비 친절 캠페인과 예방교 아래 징검다리 이끼제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장흥군의용소방대에서는 장흥대교 아래 징검다리과 여울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철저한 탐진강 환경정비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막고 깨끗한 지역

지역 기관·단체 탐진강 환경정비 및 친절운동 27일~내달 2일까지 탐진강변·우드랜드 일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나선 것이다. 봉사자들은 탐진강변 일대 징검다리과 여울의 이끼를 제거하고 쓰레기 줍기 및 수초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환경정비 후에는 물축제 성공을 위해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장흥을 만들기 위한 친절 캠페인에 나섰다. 장흥군은 최근 11회째를 맞은 물축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탐진강 구간 풀베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변공원 주변으로는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꽃밭과 꽃거리를

조성해 물축제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탐진강 대정소에 참여한 한동희 장흥군 부군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사회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객과 군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시원하고 깨끗한 탐진강에서 여름 즐거움 추억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장흥읍 탐진강변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진도군, 우수한 산림 행정 ‘호평’

산림지원을 활용한 진도군의 특성화된 산림 행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무공해 퇴비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다.



■ 진도 사천리 물놀이장...피서지로 인기 몰이

여름방학을 맞아 진도군 의신면 침철산 자락에 위치한 ‘사천리 물놀이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14일부터 무료 개장했다.

사천리 물놀이장은 860㎡ 규모로 평균 수심은 50cm다. 워터드롭 등 물놀이시설 3종이 올해 신규로 조성됐다.

진도 사천리 물놀이장 인근에는 국가지정 명승지 제83호인 운림산방, 삼별초테마공원과 오토캠핑장, 천년고찰 쌍계사 등 관광 명소가 즐비하다.

특히 안전요원 3명을 상시 배치하고 물놀이장에 공급되는 물은 침철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청정 계곡물인 100% 지하수를 제공하고 14일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발’

2013년부터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숲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지금까지 8,700여명이 참여했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숲 해설가와 아이들이 숲은 놀이터, 꿈틀꿈틀 애벌레(벌), 신나는 모래놀이(여름), 왕왕왕 고추잡지(가을) 등 계절별 주제에 따라 오감으로 숲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5ha 면적의 편백나무 숲에 약 1.2km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진도 삼별초공원 인근 ‘무장애 숲길’ 인기

지난 2017년부터 편백나무 향기를 맡으며,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이 조성됐다.

운림산방초공원 인근 편백나무 숲에 일반인 뿐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이 조성돼 지난해 2월 개통했다.

진도군이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6억7,000만원을 확보해 1.2km에 걸쳐 조성한 ‘무장애 숲길’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토 포장과 데크로드 구간을 연결, 경사가 거의 없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쉼터, 의자, 툴박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었고 인근 유아숲 체험장에도 연계, 자라리는 쉼나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 사업 산림청 평가 결과 올해 초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여름방학 다문화가족 물놀이 행사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승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1일 합평 엑스포 공원 물놀이장에서 다문화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야! 방학이다’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즐거운 물놀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

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승자 센터장은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보니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문화가족에게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사단법인 무안서로나눔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교육, 통번역 지원, 비타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 붉은쏨뱅이 등 수산종묘 160만 마리 방류

완도군은 24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붉은쏨뱅이, 해삼 꼬막 등 3개 품종 종묘 16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억1500만원이 투입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는 각 지역 어촌계가 참여했다. 해삼은 6개 어촌계에서 26만7000 마리, 꼬막은 6개 어촌계에서 120만 마리를 방류했다. 완도 정도, 신지 송골 등 2개 어촌계는 붉은쏨뱅이 9만3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붉은쏨뱅이는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연안정착성 어류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완도군은 지난 2016년 3개 품종(해삼, 감성돔, 꼬막) 93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개 품종(해삼, 감성돔, 참돔, 꼬막, 전복) 167만 1000마리를 방류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축제 ‘기대’

내달 2일 거문도 일원서 어촌탐방·참치먹이주기 등 다채

제18회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 체험행사가 다음 달 2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어족자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행사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거문도·백도 섬과 바다에서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체험행사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거문도갯노래로 막을 연다. 거문도갯노래는 과거 거문도에 사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불렀던 노동요로 해마다 이맘때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에서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거문도갯노래보존회와 여수시립국악단, 우도 풍물단이 함께 공연한다. 육상과 해상을

활용해 설치한 주 무대에서 거문도갯노래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과 함께 거문도에서 어촌마을 탐방, 참치 먹이 주기 체험, 고동 까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지난 인기를 끌었던 맨손 활어잡기와 지인망 끌기 체험은 올해도 이어진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산물로 만든 먹거리가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자연경관이 신비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문도·백도를 알리고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